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6월 28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시온 성과 같은 교회 / 찬송가 210(신) 245(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52번(시편 119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구주를 생각만 해도 / 찬송가 85(신) 85(구)

기도 / 조창 집사

성경 봉독 / 이사야 6장 9-13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베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찬송가 324(신) 360(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바다와 하늘의 주 / 다같이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받은 첫 사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들었음에도 듣지 않으려는 인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2. 이사야의 시대는 변영의 시대였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나라 역시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변영의 한가운데서 무너짐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관찮다고 믿는 인간의 확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 그럼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는 베어질지라도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화려한 가지가 아니라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 설교 요약

정답을 가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선 사람

마 12:28-34

1. 신앙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모르는 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옳은 말을 하며, 익숙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경의 표현은 자연스럽게 워지고, 믿음의 대답도 능숙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답 자체보다, 그 답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2. 예수님 앞에 선 서기관은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제사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대답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통찰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의외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3.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까이 와 있었지만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움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들어감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서 있는 것과 그 나라의 삶을 살아 가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일 수 있습니다.
4. 오늘날 우리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왕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에 의해 설명되고 변화되는 사람인가?
5. 복음은 우리에게 더 많은 정답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평생을 가정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5. 성경앱 추천 godpia.com 에 들어가셔서 '성경읽기'를 선택하시고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쉬운성경 번역을 참조하시며 성경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7월 예배위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박승화(5)	한광기(12)	최명희(19)	최상천(26)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이사야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남겨두심

베어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이사야 6:9-13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v.13)

1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 (v.9-10)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시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도록 말씀을 거절해 온 완고한 마음에 있습니다.

2 다가올 심판을 아시는 하나님 (v.11-12)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묻자,
 하나님은 성읍의 황폐와 백성의 포로됨을 말씀하십니다.
 번영과 안정 가요데 있었어도,
 하나님은 역사의 끝을 보시며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3 그래도 남겨 두시는 하나님 (v.13)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남기십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가지가 아니라,
 남겨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를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회개하는 사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루터기에 남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사람은 끝을 보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미래를 보십니다.”

SOLI DEO GLORIA